

음성 가이드 : 머리 없는 불상

불교가 처음 중국에서 전래된 지 1,000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 다른 종교들이 운젠에 들어왔습니다. 1549년 예수회 전도사가 일본인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울타리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머리 없는 불상은 두 종교가 충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있는 일례입니다.

16세기 말에 걸쳐 기독교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마바라반도의 영주 아리마 하루노부는 1580년 기독교로 개종하고, 불교와 신도의 신사 불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운젠의 불교승 공동체는 쇠퇴했고, 그 지역은 예전의 종교적인 영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불상은 약사여래로 약과 치유의 부처입니다. 이 불상도 다른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공격으로 목이 잘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불상은 우상숭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614년에 기독교가 금지된 후 몇 개의 불상은 복원되었으나, 19세기에 그 대부분이 다시 참수되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운 일본 정부는 서구 제국과 비슷한 민족국가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가 종교가 국가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면서 그때까지 신불습합으로 융합되어 추앙받고 있던 신도와 불교는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 신도(神道)가 국교가 되었고, 신도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상징인 수많은 불상과 사찰을 파괴했습니다. 운젠은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항상 조화롭던 종교의 장은 아니었습니다.